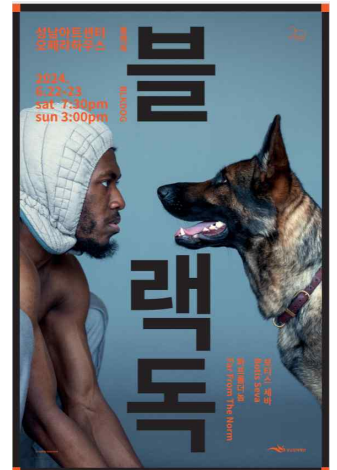


힙합 댄스 시어터 <블랙독 BLKDOG>

- 일 시 : 2024. 6.22(토)~23(일) / 토 19:30, 일 15:00
- 러닝 타임 65분(인터미션 없음),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
- 장 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 작 품 : 블랙독 BLKDOG
- 안무 및 연출 : 보티스 세바 Botis Seva
- 출 연 : 파 프롬 더 놈 Far From The Norm
- 티 켓 :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 예 매 : 성남아트센터 및 인터파크 티켓



대한무용협회
40% 할인 링크

<http://ticket.interpark.com/Contents/PartnerClosure?BizCode=55349>

[인증번호]
op5666

■ 공연소개

완전히 새로운 장르와 춤의 시대로의 안내

"If you're interested in the future of dance, you must see it." _ Adelaide Festival
"춤의 미래에 관심이 있다면, 꼭 봐야 할 공연" _ 아델레이드 페스티벌

영국의 안무가 보티스 세바^{Botis Seva}가 이끄는 힙합무용단 파 프롬 더 놈^{Far From The Norm}이 올리비에상 수상작 <블랙독^{BLKDOG}>을 한국 무대에 처음 선보인다. 보티스 세바는 힙합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 구조, 연출법을 실험하며 새로운 안무를 창조하는 안무가 겸 연출가로, 글로벌 브랜드 샤넬이 문화예술 분야의 한계를 뛰어넘은 혁신가들의 지원을 위해 2021년 신설한 '샤넬 넥스트 프라이즈 CHANEL Next Prize'의 첫 수상자¹⁾ 중 한 명이다.

장르의 경계를 넘어 "공연예술화된 힙합 춤"의 새로운 가치와 감동

<블랙독>은 이 시대의 청년들이 세상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아람답도록 잔인한 기록이다. 보티스 세바가 어린 시절 겪은 차별과 억압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청년들이 절망과 두려움에 맞서는 방식을 담은 감성 넘치는 작품이다. 일반적인 힙합의 장르적 경계를 넘어 실험적인 무대로 재창조한 혁신적인 공연으로 "본능적이고 숨 막힐 정도로 감동적이며, 완전히 새로운 장르와 춤의 시대를 안내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힙합을 기반으로 장르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형식과 익살스러움이 결합된 <블랙독>은 2018년 영국의 대표 무용 공연장인 새들러즈 웰스^{Sadler's Wells}의 20주년 기념 위촉으로 처음 선보여 관객과 평단의 압도적인 찬사를 받았고, 2019년 올리비에상^{Olivier Awards}의 '최우수 무용 신작' 부문을 수상하며, 보티스 세바는 이 부문을 수상한 최초의 힙합 아티스트가 되었다.

1) 디자인, 영화, 공연, 시각예술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 10명이 선정되었으며, 한국의 음악가 정재일이 포함되어있다.

■ 보티스 세바 Botis Se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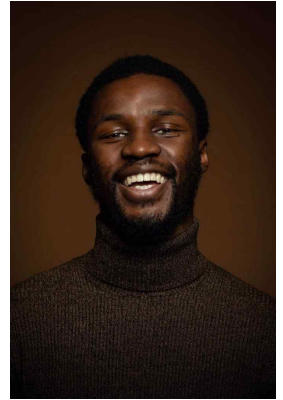
“BLKDOG is for everyone who has dealt with trauma and grief.” _ Botis Seva

“블랙독은 트라우마와 슬픔의 시간을 지나온 모두를 위한 작품이다.” _ 보티스 세바

런던 남부 태생인 보티스 세바는 그래비티 화가인 바스키아^{Basquiat}가 떠오르는 예술가로, 그의 재능은 런던 거리에서의 경험으로부터 길러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힙합과 스트리트댄스, 흑인문화가 반영된 독특한 스타일로, 사회적 박탈과 차별의 경험이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영상 및 다양한 예술 장르의 언어와 기술을 차용하는 그는 사회적 변화를 만들고 자전적 경험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힙합에 대한 정치적, 연극적, 실험적 해석은 그를 영국은 물론 세계 무대의 차세대 스타로 발돋움시켰다.

동시에, 그가 가진 독특한 언어는 혁신적 힙합무용 단체 파 프롬 더 놈을 세계적인 팀으로 끌어올렸다.



©Helen Maybanks

■ 파 프롬 더 놈 Far From The Norm / FFTN



©Camilla Greenwell

파 프롬 더 놈은 “평범함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의 이름처럼 정형화된 틀을 벗어난 힙합 그룹이다. 보티스 세바가 19세이던 2009년, 런던에서 창단한 단체로 독창적이고 활력 넘치며 두려움 없는 실험적 도전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FFTN은 현대 정치와 사회에 대한 이슈를 불러일으키며 평범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자 한다. 스트리트댄스의 언어를 해체하고 힙합과 기존 무대예술 장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그들만의 새로운 무대언어를 보여주며, 전 세계 주요 공연장과 축제에서 끊이지 않는 러브콜을 받고 있다.

■ 아티스트와의 대화

<블랙독 BLKDOG>의 연출가이자 안무가인 보티스 세바와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

프라우드먼의 리더인 안무가 모니카가 모더레이터로 참여하는 보티스 세바와 관객과의 대화!

- 일정 : 6. 23. (일) / 공연 종료 후, 객석
- 참석 : 연출 & 안무가 보티스 세바
- 모더레이터 : 안무가 모니카

